

# 청년 어업인 어촌 정착 돕는다

군산시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군산시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 전북형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7일까지로 이번 사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와 어촌 활성화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수산업 종사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부터 만 45세 미만인 청년(1980년 1월 1일~1984년 12월 31일 출생자) 어업인으로 △어업활동 종사 경력 3년 이하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8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되며, 정착 자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은 신

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은 해수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연령의 청년 어업인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라면서, "어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를 해결하고 어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진행

난임 치료비부터 산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익산시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프로그램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부터 치료비 지원사업까지 모든 세대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연령별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생리통 예방 건강교실 △임산부 건강관리 교실 △경년기 여성 건강교실 △관절 튼튼 교실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 △물과 마음 청춘 교실 △한방 순화치료 등이 다.

익산시는 한의약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와 출산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13년 도내에서 익산시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부부당 주치료자에게 180만 원, 부치료자에게 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3년간 지원을 받은 93쌍 중 21쌍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였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1년 이

내 산모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 시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897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아 건강한 회복을 이뤘다.

이진우 보건소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시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세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설맞이 청소업무 종합대책 추진

방치쓰레기 중점 수거·청소대책반 특별 편성 운영  
선물 포장재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점검·홍보

군산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청소업무 종합대책을 수립, 시민과 귀성객이 깨끗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에 나섰다.

지난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주요 교차로, 관내 가로변, 이면도로 집중청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고군산 도서 지역, 근대역사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배치되어있는 방치 쓰레기를 집중수거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종합상황실 및 청소대책반을 27일부터 30일까지 특별편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휴

가 끝난 뒤에도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내 곳곳에서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등 과대포장 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관련 집중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연휴 중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는 27일, 28일, 30일 수거되며, 29일 명절 당일만 비상근무체제 운영과 함께 주요 시내권, 관광지 위주로 수거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미래 성장의 밑거름”

강임준 군산시장, 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GBCH' 챌린지 참여

강임준 군산시장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참여하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탰다.

GBCH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구호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은 강 시장은 17일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음세대를 위한 오늘의 도약을 응원하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지지 확산을 독려했다.

또한 "역사와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군산은 올림픽 유치를 통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올림픽은 관광 및 관련 사업의 성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군산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2036 하계올림픽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한편 'GBCH 챌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를 결정하는 오는 2월 말까지 릴레이 형 챌린지와 자유참여형 챌린지로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현을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를 지목하며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갔다. /군산=이재춘 기자

## “20236 올림픽 유치로 더 큰 미래 그려가요”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GBCH 챌린지 동참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했다.

'GBCH 챌린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 참여로 전북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김우민 의장은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다. 한편 김우민 의장은 이번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과 군산시 체육회 전강훈 회장을 지목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건강 쉼썸 근력 UP 교실’ 1기 회원 모집

만 50~79세, 합열·합라·성당·용동·용안·낭산 주민 대상

익산시 합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북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운동 프로그램인 '건강 쉼썸! 근력 UP'! 교실' 참여자 30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합열읍, 합라면, 성당면, 용동면, 용안면, 낭산면에 거주하는 만 50~79세 주민이다.

참여 신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합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전화(063-859-4251)로 가능하다. 접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모집이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3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전 1회(10시), 오후 2회(2시, 3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 통

익산시, 공공일자리 123명  
모집... 20~24일 신청 접수

익산시가 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상반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총 12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이로움 일자리 사업은 환경 정비 분야 97명을 모집하며,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 공원, 체육 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6명을 모집하고, 주 5일 동안 하루 5시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의 업무를 한다.

참여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으며 취업 취약계층인 익산시민이다.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비롯한 자격 정보를 심사해 채용되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시 10% 감경

익산시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신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전화(063-859-4970, 5448)하거나 방문하면 되고, 위탁사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국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